

## 다산포럼



김 동 준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재임 1945~53)은 “대통령이 되는 것은 호랑이 등을 탄 것과 같다. 탈리지 않으면 먹힐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업무의 엄중함, 함부로 포기할 수도 없는 처지를 강조하기 위해 그런 말을 했다.

그런데 나는 대통령을 맡아주었고, 그의 결정에 심대한 영향을 받는 국민 혹은 ‘강력한 이익 집단’이 호랑이라고 해석한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고, 계속 기대하고 감시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국민이 가장 두려운 존재일 것이다. 그러나 막강한 조직과 돈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맡아주었고,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그를 움직이려는 집단이 더 무서운 호랑이가 아닐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퇴임 석상에서야

## 정춘 특·특



황 소 미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4년

내겐 작은 취미가 하나 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모든 의욕을 잃고, 더 이상 무엇인가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면 무작정 근처 버스정류장이나 터미널, 공방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 방문해 그 흐름을 하염없이 바라보다 오는 것이다.

물론 관음이나 관찰과 같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수많은 사람들의 움직임과 그들이 내뿜는 발걸음 이 한 공간에 모였을 때 나타나는 거대한 흐름과 거기서 나오는 활력, 그리고 박동하는 생명력 같은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특히 아주 이른 새벽에야 종종 이런 장소들을 방문하곤 한다. 모두가 잠들었을 것이라 생각했던 순간에도 그곳을 가득 메우는 사람들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흐름을 보면서 영민 생각들을 정리하고, 다시 한 번 일상을 지속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기 고



변 길 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화두가 광주에 던져진 이후 광주는 많은 진전을 이루어냈다. 이전에는 광주비엔날레만이 광주의 국제적 행사였으나, 이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한 많은 기관과 행사가 국제적 수준으로 발돋움했고, 지금도 발전 중이다.

하지만, 이는 광주만의 진전은 아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많은 도시들이 2000년 이후 각종 미술관과 문화재단을 설립, 동시에 지자체 홍보를 위한 각종 축제행사를 앞다퉈 개최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행사가 많다 보니 당연히 실패한 행사도 있을 테지만, 그 중에 부산국제영화제와 광주비엔날레 같은 지역의 축제행사가 국제적 행사로 발돋움한 성공사례도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영구불변하리라고 믿었던 것들의 반동을 보고 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진부한 주제로 포럼행사를 개최할 만

# 대통령은 호랑이 등을 탄 것인데

“군산복합체가 있는 한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보장받을 수 없다”고 임기 내내 자신을 괴롭힌 군산복합체의 위험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을 하지 않았던가?

자신을 ‘바지 사장’으로 만든 공식 권력 배후의 실질 권력, 그리고 그들의 사익이 온 사회와 국가를 잠먹고 있다는 것을 퇴임 자리에서 폭로할 정도로, 그들의 힘은 사실 대통령 위에 있었다. 대통령은 4년 만에 바뀌지만, 그들의 권력은 계속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하게 호랑이 등에서 내리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제 함대를 생겼다. 그를 태우고 달려 온 호랑이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잘 알고 있는 호랑이는 새누리당과 국정원, 검찰, 종편 TV다. 새누리당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지금까지 대통령의 말에 전혀 도를 달지 않고 충실한 돌격대 역할을 해 주었다. 국정원은 맺금 부대를 동원해서 선거를 지원했고, 종편 TV들은 지난 대선과정이나 최근까지 내내 대통령의 발언이나 정책을 거의 일방적으로 지지했고, 비판자들을 종북·좌파로 맞받아 쳐 주었다.

그런데 과연 이들 호랑이가 정말 대통령의 가치나 노선을 지지해서 그렇게 등 위에 태워 주었을까? 그것은 지금 여러

종편의 보도나 앞으로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나타날 새누리당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돌아섰다. 종편은 거의 하루 종일 박근혜 대통령을 발로 차고 비웃는다. 새누리당 일부 지도부는 탈당 및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땅에 내던질 태세다. 주인의 힘이 빠진 순간 검찰은 주인에게 달려들 것이다.

그들이 주인을 배신했다고? 이익으로 뭉친 집단에게 무슨 의리와 윤리 도덕이 있을까?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가혹하게 버리는 것이 그들의 속성 아닌가?

과연 이게 전부일까? 그들은 새끼 호랑이일지 모른다.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어미 호랑이가 있다. 바로 재벌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K 스포츠·미르 재단 모금을 직접 지시·독려하고 또 재벌들과 독대하여 ‘팔을 비틀어’ 출연을 압박했다는 보도들을 보면 대통령이 호랑이인 것 같다. 실제로 그럴까? 삼성은 총 수백억 원을 최순실 딸 정유라의 승마 훈련 관련 비용과 두 재단에 출연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삼성그룹의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에 손을 들어 주어 이재용의 세습을 지원하면서 약 800억 원의 손해를 감수했다. 이게 우연한 일일까?

재벌 기업들이 이 두 재단을 위해 각출한 액수는 700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 그 돈은 과연 어디서 난 것이며, 재벌 기업들은 과연 돈을 ‘각출당한’ 것일까? 그들은 이미 정권 초기에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해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철회시켰고 법인세를 낮추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이익을 각각 얻었을 것이다.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한 소위 노동개혁법, 서비스발전 기본법 통과 요청은 모두 그들의 오랜 ‘민원’이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대통령은 노동자·농민·자영업자 대표들과 만난 적이 거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태우고 달려 온 큰 호랑이 전경련과 재벌은 이미 충분히 챙겼다. 그들은 자신이 태우고 온 주인을 내던지고서 곧 다음 주자를 찾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호랑이 등을 탄 존재가 맞다. 참으로 위험하고 무서운 자리다. 문제는 누가 호랑이며, 대통령이 진정으로 자신을 태워 준 호랑이를 누구로 생각하고 행동하는가에 있다. 국민 다수자가 호랑이의 힘을 갖고 있다면, 다른 짐승들이 감히 그에게 달라붙어 괴롭힐 생각조차 못할 것이고, 또한 대통령도 안전하게 내릴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 社 說

# ‘최순실 특검’ 여야 합의…철저히 파헤쳐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4일 여야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안(특검)에 전격 합의한 것이다. 애초 정치권이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한 것은 사안의 위중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권력형 비리를 밝히는 데 현실적으로 이만한 제도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정치권의 특검 도입 합의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상 규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박근혜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이 해야 할 일은 많고 많다. 이재만·최호성·안봉근 등 등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가 최 씨를 비롯해 그의 친인척이나 차은

택·고영태 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

또 최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수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빼돌린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기업들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 등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과 삼성과 승마협회 등의 지원 의혹, 그리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 씨의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거나 방조한 혐의 등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특별검사를 추천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러한 모든 의혹을 파헤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통령의 퇴진 여부와 관계없이 진상 규명은 계속돼야 한다.

# 덜컥 제의했다 취소한 추 대표의 가벼움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만나기로 했으나 결국 취소됐다. 백만 톨볼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어제 추 대표는 단독 영수회담 제안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놓고 청와대가를 이별 받아들였다.

박-추 양자회담이 생계망개하다 못해 생뚱맞게 느껴지는 것은 엇그제 톨볼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이 절정에 달한 시점에서 이런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염려 때문이었다. 당장 다른 야당들의 반발도 있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추 대표가 그러한 제안을 한 것도, 그것을 덜컥 받은 청와대도 똑같다”며 청와대가 양자회담을 받아들인 것은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해 보려고 하는 술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 대표도 추 대표가 다른 야당과 상의 없이 박 대통령에게 양자회담을 일방 제의한 데 대해 “토요일(12일) 모인 민심이 바라는 게 거거였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국민은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는 어떤 수습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국민들에게 아낀 분열의 우려만 키우는 단독 회담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추 대표는 그동안 반대해 오던 영수회담을 왜 뜬금없이 제의했을까. 우선 이번 회담에서 퇴진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자연스럽게 본격적인 하야 투쟁으로 옮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조차 ‘빈손 회담’이 될 경우 오히려 이번 제안이 청와대에 역이용만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추 대표가 박 대통령과 만나 정국 해법을 찾겠다는 의도는 애초부터 옳지 않았다. 실제로 대통령 하야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회담의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차피 민심의 압박으로 대통령은 구석에 몰린 상황이다. 오늘 양자 회담은 취소됐지만 추미애 대표의 가벼움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다.

## 無 等 鼓

간밤에 비가 뿌렸다. 금남로는 온통 노란 빛깔이다. 비가 그친 후에도 노란 은행나무 잎들이 바람결에 우수수 떨어진다. ‘은행잎 비’다. 사직공원을 통과하는 도로 역시 낙엽길이다. 알록달록 물든 낙엽들이 도로를 뒤덮었다. 느티나무 이파리는 갈색으로 바짝 말라 버렸지만 단풍나무 잎은 붉디붉다. 시내 종교서점에서 구입한 책을 들추다 보니 마른 은행잎이 책갈피처럼 끼워져 있었다. 앞서 책을 읽었을 책 주인의 따뜻한 정서가

느껴졌다. 옛날에는 책을 종이 슬지 않도록 방부 목적으로 은행잎을 넣어두기도 했다고 한다. 요즘이야 그런 목적보다 길가에, 숲속에 떨어진 낙엽이 고와서가 아닐까 싶다. 낙엽은 겨울을 나려는 나무가 생존을 위해 취하는 절차임을 누구나 잘 안다. 늦가을, 본격적인 추위가 몰려오기 전에 침엽수인 은행나무도 스스로 이파리를 떨어뜨려야 할 때임을 알아챈다. 무서리를 맞은 나뭇잎들은 낙엽이 지기 전 잠시나마 색색의 아름다움을 보여 준다. 그리고 차가운 겨울을 견딘 후 이듬해 봄에 새싹을 틔운다. 하지만 인간 세상에서는 이러한 낙

엽의 순리를 쉽게 받아들이질 못한다. 자연의 이치를 거역하려고만 한다. 금남로에 내걸려 있는 플래카드의 ‘퇴진’이라는 문구와 낙엽이 유독 오버랩돼 보이는 까닭이다.

지난 12월 광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촛불 시위가 펼쳐졌다. 서울 광화문 앞 세종로에만 100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퇴진’과 ‘하야’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

법 제1조’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나왔다.

이날 집회 사회자는 ‘진짜 대통령은 시민’이라고 말했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자 거리에서 촛불을 밝힌 학생과 주부·직장인 등 평범한 시민들에게 울림을 주는 말이다. 반면에 낙엽 지듯 저야 할 것은 저야 한다.

“흐르던 냇물이 속속였다/ 흐르지 않는다 단풍나무 은행나무/ 졸참나무 낙엽들만 소보록이/ 쌓여 있어 늦가를 빛으로/ 출출 중얼대며/ 흐르던 냇물이 속속였다”(문충성, ‘만추’)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 푸르른 부끄러움

얼마 전 잠시 공항을 방문할 일이 있었다. 비행기가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았고, 문득 내가 좋아하는 어느 순간처럼 오랜만에 가진 여유 속에서 거대한 사람들의 흐름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자리에 앉아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찬찬히,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가던 마중과 배웅,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던 기쁨과 슬픔의 얼굴들을 바라보다 문득 청춘이란 공항 같은 것이라 생각했다. 내가 잘 알지 못하거나, 혹은 잘 아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고, 떠나보내며 나는 홀로 그들을 기억 속에 묻는 장소. 오래 머무는 사람은 없고 저마다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만 있는 ‘공항’ 같은 게 바로 청춘 아닐까 하고...

사람들은 청춘, 특히 20대를 이르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절이라 칭한다. 나이가 들어갈 수록 이 시기가 자신에게 남겨진 일생에서 다시는 맞이하지 못할 순간, 가장 소리없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버린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청춘을 의미할 때 나 보내지 않으려는 어떤 특별한 행동은 하지 않으려 한다. ‘다른 이들 모두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간다. 마치 공항 의자에 앉아 멍하니 앉아있다가 문득 시

계를 났을 때 탑승시간이 가까워져있는 것처럼. 딱히 스스로 어떤 행동(그것이 사소한 특별하든)을 취하지 않아도 시간의 흐름은 다가온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시기에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이고, 굳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시간은 저절로 흐르며, 남들과 다르게 행동해 스스로 의미를 남길 수 있을 망정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주체가 본인임을 알고 있지만 종종 이를 망각한다. 선택의 주체는 자신임에도 자꾸만 다수의 타인을 바라보고, 그들에 기준을 두며, 그들을 모방해 선택을 실천한다.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그렇지 않은 다수를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에 있어 괜한 불편함을 주는 그들을 의도적으로 망각하려고 노력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대하는데 있어서도 대중과 함께 침묵하고, 무관심하며, 체념한다. 대다수가 그렇게 하기 때문이고, 가만하, 적당하, 조용하 있다 보면 시간은 언제나 그래왔듯 저절로 흘러갈 테니까. 그러다 보면 어딘가, 딱히 어딘가 불편한 마음을 지니지 않은 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다.

최근 대한민국 국민으로, 더 나아가 청춘의 한 사람으로 ‘푸르다’는 의미 담은 글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칭파하고 부끄러움 만큼 많은 일들이 터져 나와 우리 사회를 연이어 푸른 빛깔로 명들이고 있다. 이제는 도저히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면 일어나려는 청춘들에게 누군가는 여전히 그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 마치 그때처럼. 가만하, 적당하, 조용하 있다 보면 모든 일들은 저절로 해결 될 것이라고. 그러니 괜히 남들과 다르게 보이는, 눈에 띄는 행동들은 하지 말라고 말이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너만 청춘이 아니라 자신도 겪어봤고 가만히 있어도 목적지에는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진실로 그런가? 가만히 있으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쩌면 누군가가 한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일 수도 있다. 청춘이란 머무를 수 없고 그저 스쳐지나만 가는 거대한 흐름이며, 우리는 그것에 순응하여 언젠가 다른 곳을 향해 떠나야만 하는 여행객에 불과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청춘이라는 공항을 떠나 자신만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자신과 다른 행동을 택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비행기에서 내린 자신의 발뒤꿈치 언저리 어딘가 먼을 하염없이 내려다보며 스스로를 창피해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 문화가 흐르는 광주를 위하여

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우후죽순 생겨난 전국의 비엔날레 행사는 각종 언론에서 ‘무용론’이 나올 만큼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광주는 아직 너무나 많은 발전기회가 있다고 본다. 가장 큰 이유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의 세 부처 내용을 들여다보면 크게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진흥’과 ‘시민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문화산업 진흥’, ‘문화교류·협력의 활성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 등 5가지다. 이대로만 하면 광주는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될 수 있고, 세계적 문화도시로 발돋움해 거대한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도심 한가운데 문화전당이라는 건축물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지하 건축물은 아시아문화도시라는 구도에 있어서 그저 5분의 1에 해당할 뿐이다.

그 중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이며, 거기에 따른 7대 문화지구 조성사업이다. 문화전당과 광주 5개구 전역 거점지구를 중심으로 분포한 7대 문화지구는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면 광주를 세계적 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획기적 연구결과물이다.

부산이 해운대를 개발했듯이 우리도 특별법을 통해 광주를 문화도시로 개발할 수 있다. 해운대는 단지 해수욕장만 있는 곳이 아니다. 서울도 제천 회의(Meeting)·포상관광(Incentive Travel)·컨벤션(Convention)·이벤트와 전시(Events & Exhibition)를 통틀어 MICE 산업지구다. 이 사업을 통해 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입 등 도시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해운대 센텀시티 지구는 부산 벡스코(Bexco), 영화의 전당,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등 각종 MICE 산업과 IT접단 산업단지가 들어간 부산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운대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 달맞이온천축제, 모래축제, 부산비엔날레 등 각종 행사가 개최돼 매년 수백만이 넘는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전 세계 주요도시들이 MICE 산업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미 해운대는 수도권 서울을 뛰어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그 결과를 잘 보여주는 것이 특급호텔 숫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5년 기준 부산의 특급호텔은 특1급 8곳, 특2급 4곳이다. 이와 달리 광주는 특1급 1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실망할 때가 아니다. 그 결과는 광주의 책임이 아니다. 다만, 역사가 드러온 빛과 그림자일 뿐이다. 광주의 빛은 단연코 문화도시 사업이다.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                |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월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 광고문의 062-227-9600         |                   |
| 국문내<br>표 FAX 222-4918                      | 경 제 부 220-0663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
|                                            | <FAX 222-4938> | <FAX 222-8005>            | <FAX 222-0195>    |
|                                            | 편 집 부 220-0649 | 기획관리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                                            | 문 화 부 220-0661 | <FAX 227-9500>            | <FAX 222-0195>    |
|                                            | 치 부 220-0632   | 문화미디어부220-0664            | 다 지 인 실 220-0536  |
| 서 울 지 사 02-773-9331                        | 체 육 부 220-0697 | 서 울 지 사 02-773-9331       | <FAX 02-773-9335> |
| 사 회 부 220-0642                             | <FAX 220-0697>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사 회 2부 220-0652                            | 사 진 부 220-0693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